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은 환성영각을 복원 중창하고, 300년전에 조성했던 환성지안 스님에서 근대 해봉스님에 이르는 21조사의 진영을 새로 재현해 봉안했다.

최초 비구니 강원에 국내 최대 영각 복원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불사회향...21조사 진영 봉안, 봄·가을에 다례

상주 남장사(주지 종호)의 산내암자인 관음선원(갑원 정원은 4월 15일 환성영각 복원중창불사 회향 및 21조사의 진영 봉안식을 봉행했다. 관음선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었었던 곳으로 이날 복원된 영각은 24평 2층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다.

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과 전 조계종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정각사 주지)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명종과 테이프 컷팅식에 이어 영각에서 진영봉안식이 관음전에서 불공, 조사 영반이 각각 봉행했다.

환성영각은 환성지안(1664-1729)선사

로부터 해봉(1874-1956)선사까지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온 21명의 역대조사 진영을 모셔온 진영각으로 1704(숙종30)년에 신축했으나 원형 보존에 장애가 있어 남장사 주지였던 성운 스님의 원력으로 중창복원불사를 화행하게 됐다. 또, 21조사의 진영 역시 도난·훼손되는 아픔을 겪으며 사진으로만 모셔왔던 것을 관음선원이 출가사찰인 광우 스님의 원력으로 재현 봉안하게 됐다.

정면4칸 측면2칸의 환성영각은 24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일반적인 진영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21조사의 진영은 석명통(국가문화재수

리기술자 제377호단청장에 의해 자료수집과 복원조성방법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2년여의 시간동안 복원 조성됐다.

관음선원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해봉 선사가 조실로 있으며 20여 년간 남장을 지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관음선원에 설치했던 최초의 비구니 강원은 비록 일제 정선대 징집의 압박으로 4년만에 문을 닫았지만 1943년 화산수옥 스님 아래 최초의 비구니 강원졸업식이 거행됐었다.

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은 이날 "후학들이 환성영각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진해야 하는

데 다소간의 장애가 있었으나 광우 스님의 각별한 외호원력과 정원 스님의 원력으로 오늘을 맞게 되었다"고 치사했다.

남장사 주지 종호 스님은 "환성지안 선사를 비롯해 조선 영 정조 이래 이름 없이 불멸을 이어나온 21분의 역대 조사 스님을 모시는 이 의식이야말로 후손으로서 뜻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관음선원이 출가사찰인 광우 스님의 소회는 특히 남다르다. 부친인 해봉 스님 앞에서 공부를 하러 왔다가 출가인연을 맺고 첫 비구니 강원이었을 때 수옥 스님으로부터 모든 경전을 두루 수학했다.

"옛날에는 2층 영각의 진영 밑으로 난 창을 활짝 열고 글을 읽으면서 나도 저 진영의 조사스님처럼 되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지요" 과거를 회상하던 스님은 이제 많은 후학들이 이곳에서 다시 성불의 원력을 키워갈 것이라며 기뻐했다.

정원 스님이 부인한 이후 남장초원 영재회원 50여명도 새봄에 중창 복원된 영각에서 21조사를 모시며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은 매년 음력 3월 18일과 10월 18일 21조사의 진영을 모시고 다례를 올리며 수행정진 원력을 이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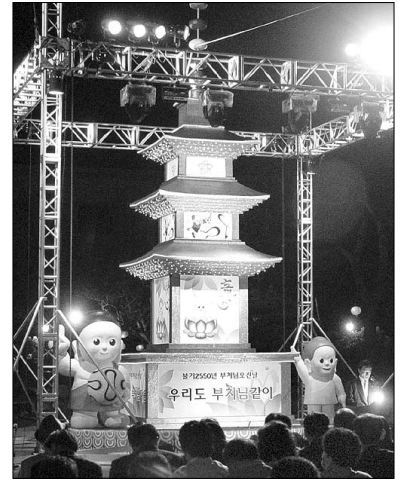
글·사진/상주·배지선 기자

대구 봉축탑 점등...축제 시작!

4월 15일 오후 7시, 1000여 명의 대구시민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국제보살공원에서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이 지혜와 광명의 불을 밝혔다(사진).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천태종 대성사 주지 직무대행 보광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법은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회장 진산 정사 등 불교계 인사들이 13명의 동자승과 점등을 하는 순간 가림막이 내려지고 석가탑과 같은 크기로 조성된 봉축탑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사회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발원하는 찬란한 불을 밝혔다.

봉축위 주최로 오후 4시부터 열린 봉축탑 점등식은 겹등시연과 페이스페인팅, 소원지 달기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물놀이, 그룹사운드, 난타, 중창단, 영산재 등의



식전 공연으로 대구시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됐다.

배지선 기자

금오복지관 자선음악회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등)은 개관7주년을 기념해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LG와 함께 하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복지사업의 파트너 LG경제협력회와 함께 여는 자선음악회는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펼쳐온 사업을 점검해 더욱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불교방송 부처님오신 날 특집공개방송으로 꾸며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악인 김영일, 인기가수 김범룡과 크라이닉, 모듬북 공연으로 유명한 품바 김규형, 자연스님 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054)458-0230

배지선 기자

대구 경북 봉축음악회 풍성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음악회가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려 불자들이 연일 풍성한 불교음악과 문화의 향연에 젖어들었다.

4월 17일에는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대구경북불교음악협회(회장 이달철) 주관으로 '불기 2550년 불교음악대축제 찬불가 합창의 밤'이 개최됐고, 18일 저녁에는 관오사(주지 지도) 선정합창단과 함께하는 바리톤 임익선 독창회가 열렸다. 또, 22일에는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에서 가수 이용과 도신 스님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

렸다.

지역 불교합창단의 음악적 교류와 수준 향상을 위해 열린 '찬불가 합창의 밤'은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한 지역의 불자와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구 불교대학 합창단, 송림사 법회선열 합창단, 죽림사 포항불교대학 합창단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8개 합창단이 참가해 주옥같은 찬불가를 소개했고, 불로사 탐비니 소년소녀 합창단과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멋진 공연을 펼쳤다.

대경불교언론인회 정기법회

대구경북불교언론인회(회장 송병규)는 4월 16일 대구 가창 운흥사에서 2006년 첫 가족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장재 스님과 지역 언론에 종사하는 불자, 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운흥사 주지 종은 스님은 "지역의 언론에 종사하는 불자들이다 보니 밖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입력해왔을 것이라며, 짙게 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자신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대구경북 불교언론인회는 언론인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기 위해 연 4회의 정기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개관 5주년 기념 체육대회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4월 30일 황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불국다보회와 공동주최로 '개관 5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동화사 아미타후불탱 등 시문화재 지정

향후 예산 투입 정비 계획

대구시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팔공산 동화사의 아미타후불탱 3폭과 보조국사진영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52호와 53호로 각각 지정하는 등 16건의 중요문화유산을 대구광역시문화재로 4월 20일자로 지정했다.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구광역시문화재에는 불교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팔공산 동화사의 대웅전 삼장탱과 부도암 신중탱, 죽암당대선사 선화진영이 시 문화재자료 제 37, 38, 39호로 지정됐으며, 달성군 유가면 소재 대웅전과 목조지장보살좌상이 문화재자료 제43호와 제44호로 각각 지정됐

다. 또, 지난 99년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하부구조 38기, 관련 유구 3기 등 총41기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상동 지석묘군과 달성군 화원읍 소재 화장사와 사찰 인근에 소재하는 천내리 지석묘군 8기 등은 대구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이번 지정으로 모두 178건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지정된 문화재들중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투입해 정비를 실시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부처님오신날, 나눔잔치 펼쳐요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및 대구광역시 신도회(회장 장영관)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대구 반월당 보현사 옆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연다. 자비의 전화(회장 고경순)는 28일 오전 11시 지산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맑고 향기롭게는 5월 3일 동대구 지하철역에서 자비의 떡 나누기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현문스님 불신임 결의서

- 1) 영축산문의 수행가풍을 사자상승하지 못하였다.**
2003년 12월 영축총림 방장이시던 율해대종사께서 입적하시고, 영축총림은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총림방장이 유고되었으면 산중총회를 통해 방장을 추대하고, 그 위업을 사자상승하여 영축산문의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총림설치의 목적을 다하여야 했다. 또한 총림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임회를 중심으로 총림발전에 진력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문스님은 주지임기와 직무연장에 급급하여 방장을 추대하지 않았고, 스스로 어른으로 자칭하며, 종단과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큰스님의 위엄과 그 자취마저 없애버리는 중대 결과를 가져왔기에 축산문도로서, 노천상좌로서의 제자 됨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총림주지로서 중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 2) 총림대중이 추천한 방장후보를 사퇴시키고, 방장추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8월 22일 영축총림 산중총회에서 추천한 총림방장후보를 11월 종회에서 추대하지 못하고, 3월 종회에서는 종회에 계류 중인 방장추대 건마저 철회하여, 2년여 간의 총림현안 이념 방장추대는 그로써 종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간의 방장추대는 주지직대의 직무연장을 위한 허언장담이었고, 더욱이 방장 서간문을 사퇴서로 발표하고, 영축총림 혼란과 총림존립 위기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또한 명백한 주지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 3) 방장후보 사퇴발표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3월 9일 오전 방장후보사퇴가 언론에 발표되고, 통도사 종무소로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오자, 종무국장이 방장실로 찾아가 후보사퇴를 문의하였으나, 방장스님은 "후보사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주지직무대행과 통도사 종무소가 후보사퇴 정정보도를 위한 대책수립을 해야 하나, 종무소도 그 절차와 과정을 밝히 않았고, 주지직무대행은 사퇴발표 후 태국으로 잠적하여, 총림 중요 현안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 4) 종단원로의 명예와 통도사 위상을 실추하였다.**
방장후보사퇴 조작발표와 방장후보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통도사는 대안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는 양대문중 원로와 중진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지직대까지 추진했던 방장의 신의를 배신 폄하하고, 종단원로로서의 명예를 실추케 한 것이고, 영축총림 위상과 통도사 재적대중의 명예를 손상한 중대한 사실이기에, 종법상의 주지직무유기이자 바라이죄에 해당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현문스님은 주지직무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종단원로이자 방장후보자이신 초우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희생시키면서, 통도사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한편 장기 집권구도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종단과 종도를 호도하면서, 총림 정진대중과 재적대중의 공의를 무시하였고, 영축총림 존립위기에까지 가져왔다. 또한 총림중진들을 차기 직무대행자로 추천하겠다는 갑언이설로 중진들마저 희생시키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제 모든 것이 위계에 의한 방장후보사퇴 조작과 주지 직무연장을 위한 음모로 밝혀졌기에 현문스님의 「통도사 주지직무대행 불신임」을 결의하고, 새로운 주지직무대행을 추천하여, 영축총림 통도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불기 2550년 4월 13일

영축총림 통도사 비상대책위원회 의장 목 산